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회복 방안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조 혜 경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회복 방안

지도교수 신 명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조 혜 경

조혜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 월 일



주 심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역사학박사 강 인 욱 (인)

위 원 문학박사 신 명 호 (인)

< 목 차 >

I. 서론	1
II. 수학여행의 교육적 이론과 배경	2
1. 특별활동의 목적	4
2. 현장 · 체험학습의 효과 및 특색	5
1) 체험활동의 개념	6
2) 체험활동의 영역	6
3. 현장체험학습으로서의 수학여행의 특징	8
III. 수학여행의 교육적 현황 및 문제점	11
1.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파악	11
1)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족 내용 분석	11
2) 일본 수학여행과의 비교	14
2. 현행 수학여행의 문제점	16
1) 관광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6
2)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8
3. 수학여행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	20
IV. 수행평가와 연계된 수학여행 방안	22
1. 수학여행 일정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	22
1) A중학교의 수학여행 일정 및 분석	22
2) 방문지의 구성과 시간 운영 분석	24
2. 수행평가와 연계한 수학여행 실시 방안	25
1) 사전 준비 단계	26
2) 현장 활동 단계	28
3) 사후 정리 및 반성 단계	30
3. 수학여행을 이용한 수행평가안의 제시	31
V. 결론	36
참고문헌	38
부록	40

A Study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School Excursion

Hea Gyeong Ch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chool excursion is a key part of the school event activities among the various extra activities. It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7th School Curriculum because it is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and it has the meaningful effects.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school excursion gives us so many opportunities to have the real experiences that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However, it has presently become a one time dull event not to be able to satisfy the students, who are suffering the insufficient experiences. The present school excursion lacks the educational effects and the students just think it the formal sightseeing provided by school.

In this thesis, I researched all the courses of the school excursion and analyzed the numbers of the field trip places, the allotted hours of each program, the characteristic of visiting places, the prepar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s, the ways of the actual practice and the educational effects. I also studied the evening activities of which the schedules are usually unsettled. To enliven the educational experiences instructively, I reconstructed the courses of the school excursion in relating them to the achievement evaluation. I suggested solutions to recover the educ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excursion by specializing each course of the field trip programs and encouraging teachers to focus on their own teaching programs.

I 서론

현행 7차 학교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학습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진 다. 학교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제7차 개정에서 단위학교에 특별활동의 내용 선정, 시간 배당 등에 있어 융통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창의적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입체적인 복합 편성 및 운영으로 다양화, 개성화, 특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지닌 자율적인 한국인을 양성하고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인간적, 교육적, 문화적 욕구를 중시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개정의 취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그 교육적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활동의 5대 영역 중 행사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과 규모로 이루어지며 어떤 활동보다도 적극적인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수학여행이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직접적인 삶의 경험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폭 또한 좁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체험학습의 좋은 기회로서 수학여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학습의 효과와 장점은 갈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그 기회를 더욱 마

련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온전하게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경험하고 심화하며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여행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 수학여행은 관행대로 일회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불과하며, 학습 활동과의 연계는 매우 빈약하다. 단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여행으로서의 기능만이 부각되어 관광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충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학여행(修學旅行)에 있어 ‘여행(旅行)’은 있으나 ‘수학(修學)’은 그 흔적이 희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유희의 측면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고 학습자인 학생들의 일탈의 기회로 전락하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수학여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미룰 수 없으며,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누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예외 없이 치러지고 있으며 학생들 개인별로는 학교 단계에 따라 1회 이상, 모두 합하여 최소한 3회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수학여행이 그 교육적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체험학습으로서 과연 소기하는 바의 교육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 준비, 현장 활동, 사후 정리 및 반성의 과정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학여행이 학습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학습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수학여행의 교육적 이론과 배경

김상윤은 수학여행을 학교교육과정 중에 실시되는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보면서 “ 청소년 여가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 주고 취미활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원만한 대인관계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길러주고 이해와 양보를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길러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하여 교육 과정 중에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에 포함되어지는 수학여행은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¹⁾고 하였다.

실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의 실시 목적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하며 건전한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학교와 학급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한다.’거나,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현장체험 및 문화유적 탐방을 통하여 산 경험을 얻게 하며, 단체생활 및 극기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양하고 올바른 이상과 꿈을 갖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수학여행은 학교교육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각기 나름의 실시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서 수학여행의 이론적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특별활동의 목적과 체험학습의 효과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1) 김상윤(1998), 「수학여행의 반성과 발전」, 수학여행 제 14호, 한국 수학여행 협회.

1. 특별활동의 목적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학여행활동이 이뤄지는 특별활동 부분의 교육과정개정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교육부: 1999)

첫째, 건전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지닌 자율적인 한국인의 양성

둘째,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인간적, 교육적, 문화적 요구를 중시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편

셋째,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가 지닌 독특한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심미적 특성과 욕구, 필요가 충분히 반영된 교육과정 개설

넷째, 학생의 능력, 소질, 특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다섯째, 각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운영

이처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기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식교육보다는 감성과 개인적 능력을 심화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²⁾

이번 제7차 개정에서는 단위학교에 특별활동의 내용 선정, 시간 배당 등에 있어서 대폭적인 융통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이전의 단순한 편성에서 벗어나 단위학교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에서 제시된 단위학교의 재량권과 창의

2) 한국 청소년 개발원(2003), 『청소년 수련 활동론』, 교육과학사, 257~258쪽.

적 운영의 방향 설정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고, 다양화, 개성화,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특별활동의 운영에 있어 수학여행만을 놓고 볼 때, 새로운 대안 모색의 노력과 실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욕구와 필요가 반영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강조된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정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충분한 논의와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학여행은 활동조건에 창의적인 변화와 무궁한 다양성을 담을 수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만 있다면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학습경험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자발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이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면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 필요가 반영된 적극적이고 성과가 있는 교육활동이 되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수학여행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 · 체험학습의 효과 및 특색

수학여행은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 활동이 그 근간을 이루며,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활동의 개념과 영역을 알아보

고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의 학습효과 및 특색을 살펴보면서 수학여행의 학습활동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체험활동의 개념

체험이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³⁾ 이러한 체험은 인간의 기억과정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은 기존의 기억구조에 부단히 새로운 것을 통합해가며 경험을 재구성하고 학습한다. 경험에 의한 자료는 다른 감각과 시각, 감정을 수반하고 기억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활동이 좋다는 것이다.(참조: 경기도교육정보원, 2000)⁴⁾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나 영역을 찾아가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현재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접하는 학습방법이다.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험활동의 영역

체험활동의 영역 분류는 그 분류체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체험활동의 내용이 담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으로서의 영역은

3) 체험의 사전적 의미는 몸소 겪은 경험 혹은 특별한 인격이 직접 경험한 일체의 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두산동아: 2000) 교육학 사전에서는 체험을 경험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며 이것은 일정한 때나 일정한 기간 중의 개인의 심리적 현상의 총체를 말하기도 한다.(교육서관: 1986)

4)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앞의 책, 29~30쪽.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윤경철: 1999)

첫째, 자연생태체험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에 관한 체험으로 탐사활동, 환경보호, 관찰활동, 실험활동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체험의 영역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 시장 등의 방문과 접촉, 국회, 행정부, 법원, 언론기관을 견학하여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시민단체 및 사회 복지기관, 시설을 방문 접촉하여 사회 여러 가지 현상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 일원으로서 봉사활동, 견학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문화·역사체험의 영역을 들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영화 등 각종 공연과 전시활동, 스포츠 경기의 관람 및 예능의 역할, 스포츠의 역할·기능을 습득하고 문학적, 예술적, 민속적, 역사적인 많은 유적지를 방문 답사하는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답사활동, 테마활동, 관람활동, 각종 시연활동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넷째, 직업진로체험의 영역을 들 수 있다.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발견하고 미래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직업 영역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생활체험 즉 공동체 체험의 영역을 들 수 있다. 생활노동체험, 농장체험, 인간관계형성, 야영활동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여섯째, 기타체험의 영역을 들 수 있다. 기타체험이란 위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체험하면 대단히 좋은 것으로 도·농 교류 체험활동,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교류 체험활동, 행사관련 활동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오지 및 기아체험 등을 들 수 있다.⁵⁾

5)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앞의 책, 35쪽.

수학여행은 이상의 여섯 가지 체험활동영역이 모두 모여 있는 종합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정을 구성할 때 어떤 활동에 중심을 둘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연관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을 연계시킨다면 현행의 수학여행 일정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순히 방문지들만 나열되어 있는 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여행을 실시할 때 목적하였던 주제와 방향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일정을 완성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여행을 다녀왔을 때 이번 여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를 알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무엇을 느꼈는지가 분명하게 남겨진다면 그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행 장소와 다양한 경험들이 어우러져 깊이 내재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내재화된 체험이야말로 수학여행이 목적하는 바일 것이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할 것이다.

3. 현장체험학습으로서 수학여행의 특징

수학여행은 현장학습을 통하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돌아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민족적 긍지를 높이고 다른 고장의 지리 풍속 등을 살펴 아름다운 국토와 발전된 참 모습을 확인하며 애郷심을 기르게 한다. 그리고 집단 질서생활을 통해서 질서의식 함양은 물론 상호 협동, 봉사하는 정신과 문화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즉 수학여행은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단계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6)

또한 수학여행은 그 성격상 어떠한 교과에도 국한되지 않고 교과, 생활, 오락 지도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특별활동 중 현장학습이라는 점에서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 수학여행이다.⁷⁾ 수학여행은 전인교육이란 교육적 목적을 지닌 학생현장교육활동이며, 일반 여행과는 달리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수학여행은 교육활동의 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학여행은 행위주체인 학생이 현장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견문과 상식을 넓혀주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교육적 의의와 장래 국민관광주체인 청소년의 관광여행경험차원에서의 관광적 의의가 있는 데 목적이 있다.”⁸⁾고 하여 수학여행의 기능을 교육적 기능과 관광적 기능으로 이원화시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규정은 수학여행을 여행의 방법을 이용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관광여행의 시각으로 볼 때 성립될 수 있다. 수학여행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미 널리 보편화되어있

6) 박철호(1995), 「學生 修學旅行制度의 효율적인 改善에 관한 研究」, 旅行學研究 第2號, 37쪽.

7) 현장학습의 기회로 수학여행을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던 이창호는 수학여행을 이용한 ‘국토순례’와 ‘주제별 현장학습’을 소개하면서 현장학습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평소의 교실수업을 통해 익힌 이론적 지식을 현장학습을 통해 확인하고 교실수업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수학여행과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각자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각 교과 지도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정도 진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준비과정에서 영역별로 학생들을 소집하여 과제나 연구자료 등을 부과하여 사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의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전국역사교사모임(2007),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485쪽.

8) 박철호(1995), 앞의 논문, 40쪽.

어 현행 수학여행이 교육적 기능을 잃어간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의 개선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 수학여행이 가진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Ⅲ. 수학여행의 교육적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현행 수학여행의 실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서,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을 살린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박철호에 의해 연구된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학여행을 이루는 요소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관광적 측면의 시각에서 본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분석이긴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여행들의 운영 상황이 조사 대상이 된 학교들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므로 적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수학여행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우리의 수학여행을 일본과 비교하여 현행 수학여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일본의 수학여행을 여행 행사 부분에 맞추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의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1)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족 내용 분석

먼저 수학여행 취지에 대한 불만족 내용의 분석이다. 수학여행이 현장관찰과 경험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시켰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을 시켰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다소 긍정적이었고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유적 답사와 산업시설견학을 통해 국민적 긍지와 교양을 신장시켰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서는 전체응답자의 60%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현재의 수학여행이 본질적인 목적이나 취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측면에서는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문화체험을 통해 자아성찰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불만족한 편이며 수학여행이 평면적인 학교수업방식의 탈피라는 인식에 대해 학생들은 현재의 평면적 학교수업방식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여행이 관광선진화에 필요한 건전한 여행문화 습득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 상품에 대한 불만족 내용을 보면, 수학여행의 내용에 대비한 상품가격의 가치에 대한 응답 결과는 수학여행상품의 내용에 비해 가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여행 실시 전 사전교육이 불충분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통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유시간의 부족과 안내원의 설명부족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수학여행의 현장관찰과 경험을 통한 학습내용의 심화를 위한 목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 실시 방법에 대한 불만족 내용으로는 학교의 일방적인 여행일정, 여행 시기, 숙박지·음식점 선정과 학생들의 의사반영 제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의식 저하, 사

전교육효과의 저하, 수학여행 목적의식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전체적인 수학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일방적인 여행목적지 선정과 여행활동 내용 선정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곧 수학여행의 목적지 선정과 같은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히면서 박철호는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유희적 의미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고, 과거와 다른 학교수학여행의 제도적·행정적·내용적 변화의 필연성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여 수학여행이 학교교육의 비효율성의 한 부분으로 남지 않도록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응방안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 수학여행이 갖는 목적이나 취지, 의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위주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여행상품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이나 여행사가 수학여행상품 기획단계 시 그들의 요구나 기호, 교육적, 문화적 체험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학여행실시 방법을 학생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실시방법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과 인식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⁹⁾

9) 박철호(1998), 「학교 수학여행의 불만족 요인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旅行學研究 第7號, 85~89쪽

즉 수학여행은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행 수학여행이 교육활동으로서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족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2) 일본 수학여행과의 비교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수학여행은 우리나라의 수학여행과 비교할 때 그 운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수학여행 전담 기구와 조직이 마련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수학여행의 모델을 연구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사전답사 과정에서는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면까지 의논을 거쳐 결정된다. 그리고 방문지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학습활동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수학여행 운영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교통편에 있어 일본은 50-55인승의 최신형 버스를 이용하며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동일한 버스 회사의 회사원인 안내원이 함께 탑승하며 수학여행 행사 중에는 절대로 앉지 않는 직업정신이 투철하다. 일본은 수학여행 코스로 역사적인 곳, 현대적인 시설물, 향토 자료관 등을 주요 코스로 활용하는데 안내원이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운전기사는 직업정신이 철저하며 정해진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버스 하차 후 교통정리까지 담당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숙박시설의 경우 일본은 2급 정도의 호텔을 이용하고 학생이 200명 이상이면 타 수학여행을 예약 받지 않는다. 수학여행 전용 호텔이 제도적

으로 장려되어 충분하며, 숙박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정리와 휴식까지 점검하여 완벽성을 기한다. 식사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학교급별, 남녀별로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여 매 식사마다 다른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¹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근본적인 운영체제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수학여행이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르게 특수한 영역으로 분리되어 전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여행 전용 숙박시설과 숙박지의 안전한 이용, 학생들의 성별과 기호를 고려한 별도의 다양한 방문지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전문화 되어 있다. 학교 측과 인솔교사는 전체 운영을 감독하며 수학여행이 목적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 부분에 전념할 수 있다.

숙박시설 하나 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학여행 여건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청소년들 전용 숙박시설로서 단체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겸비한 우리나라의 유스호스텔은 76개소 정도이다.¹¹⁾ 규모는 침상의 개수로 볼 때 100 개 안팎의 소규모에서부터 1300여 개의 침상을 갖춘 대규모까지 다양한데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학여행 전용 숙박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아직 까지 매우 부족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또 수학여행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조성극(2000), 「일본의 수학여행과 시사점」, Tourism Research 제 14 호, 60~62쪽.

11) 한국유스호스텔 홈페이지(www.kyha.or.kr) 참고.

표 1. 우리나라 유스호스텔 분포 현황

소재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개수	3	17	13	7	8	4	4	7	9	4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자료(2008)

2. 현행 수학여행의 문제점

그동안의 연구에서 분석하고 밝힌 우리의 수학여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관광적 측면의 관점에서 바라 본 문제점 분석이었으므로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수학여행단의 방문지 중에서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크다고 여겨지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관광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현행 수학여행의 관광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으로는, 첫째, 1개 학년 단위의 이동으로 인한 대규모의 수학여행단의 문제이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가 4,5,10,11월에 집중되는 수학여행 실시시기의 문제이다. 셋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숙박시설의 문제이다. 넷째, 획일적인 여행코스의 문제이다. 다섯째, 형식에 흐르는 여행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이라는 이름과 형

식에 거의 만족할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고, 교사들에게는 몇 백 명의 학생들을 사고 없이 일정에 차질 없이 그저 인솔하고 통제하느라 피곤했던 여행이었다.¹²⁾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위주의 여행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행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가선용의 한 방법으로서의 여행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수학여행을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나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쯤으로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실학습의 연장으로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서의 목적은 희미해지고 여가선용의 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생들의 일탈의 기회로 전락하기도 한다. 2007년 가을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벌어졌던 성매매와 관련된 일탈행위는 우리 국민들과 교육계를 충격에 빠트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수학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져 올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활동 중의 하나로서의 수학여행이 그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지금처럼 계속 추진된다면, 앞으로 어떤 예측하지 못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수학여행이 여가선용을 가르치는 관광적 측면의 목적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교육과정의 한 축으로서 가장 훌륭한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의 기회로서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12) 박철호(1995), 앞의 논문, 46~47쪽.

2)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수학여행은 탈교과적 활동으로 모든 교과와 체험활동의 장(場)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 그 중 역사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는 어느 교과보다 크리라고 생각한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교실수업을 심화시키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¹³⁾ 특히 수학여행 일정 중 역사적 현장과 관련된 박물관 방문은 현장감이 살아있어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학교수업과의 연계가 쉽고, 역사의 현장에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며 비판하여 판단을 내리는 등 역사교육이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박물관이다. 그러나 실제 박물관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박물관 기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물전시를 예로 들더라도 전

-
- 13) 체험활동을 통하여 역사과 수업을 이끌었던 채은숙은 체험 사례들을 소개하며 역사과 체험학습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둘째, 교실에서 배웠던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준다. 현실 자료를 교육시설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체험으로 익히는 산교육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의 모순과 결함도 보완할 수 있다. 교실에서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현장 분위기를 비롯한 새로운 호기심들이 학습의욕을 북돋우는 훌륭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
셋째, 학생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업, 협동학습이 가능하다. 더불어 활동하며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넷째, 체험학습은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다섯째, 체험학습 동안 교사는 아이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파악한 아이들의 행동특성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역사교사모임(2007),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467~468쪽.

시물의 설명문이 전문적 용어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에 불편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간의 기능적 활용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루함을 덜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단계에 맞춘 전시물 안내와 활동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그야말로 전시공간을 통과하면서 대략 훑어보는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 수학여행단을 위한 안내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¹⁴⁾ 제도와 계획에 따른 방문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을 때 박물관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 방문 전에 사전교육을 통하여 해당 박물관의 특징과 전시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접하게 하여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의 놀이문화 중에서 대화 이외에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쇼핑을 즐기는 대신, 성별과 관계없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전시회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청소년들의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정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수학여행은 이런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고급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놀이문화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수학여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준비와 훈련에 소홀하였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박물관, 유적지, 문화체험 같은 체험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적 효과

14) 송동근 외 3명(2002), 『문화관광과 박물관』, 민속원, 169~170쪽.

15) 조성남·이동원·박선웅(2003),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114호, 집문당, 74쪽.

를 살리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수학여행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

기존에 연구되고 제시되었던 수학여행제도의 개선방안들을 보면, ‘문학여행’, ‘역사여행’, ‘예술여행’, ‘자연탐사여행’, ‘환경연구여행’ 등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의 실시, 여행단 규모의 세분화, 다양한 수학여행상품의 개발, 수학여행 목적지의 다양화 및 코스의 개발, 학습체험활동 중심의 수학여행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⁶⁾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수학여행을 위한 코스를 개발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¹⁷⁾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5개 지역의 수학여행 모델 코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5개 지역을 표로 재구성해 보았다. 이 중에서 영남지방의 코스를 대표로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체험활동이 묶여 있어 지역적 특색과 주제별 코스가 어우러진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박철호(1995), 앞의 논문, 56~57쪽.

17)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부터 청소년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11월에는 기개발한 12개 모델코스를 테마별로 보다 세분화시키고 초등용과 중고등용으로 분리하여 총 47개(초등용 24개, 중고등용 23개) 수학여행 모델 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역색을 살린 체험/테마형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였다. 호남권 코스에는 전주 한지 만들기 및 익산 보석만들기 체험, 영남권은 초콜렛 문화재 만들기, 문화재 탁본 뜨기, 신라문화원 퓨전 현악4중주 공연 관람, 강원권에는 대관령 양떼 먹이주기, 치즈만들기, 레일바이크 타기, 그리고 충청권에는 외암리 민속마을 한옥민박체험과 태안 기름 유출 현장 돌아보기 등이 준비된다. - 한국관광공사 2008년 3월의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하였다.

영남지방 수학여행 코스¹⁸⁾

주 제	일 정		특 징
청정자연 속에서 조선시대 탐방	1일 차	이문열과 두들마을 → 지훈 문학관 → 반딧불이 생태학교	수학여행 발자취를 따라 문학(두들마을, 지훈문학관)과 자연에 대한 학습효과(반딧불이 생태학교)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키우고, 체험(래프팅, 철로자전거)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즐거움을 만끽한다.
	2일 차	청량사 → 청량산 등반 또는 래프팅 체험 → 답설마을	
	3일 차	소수서원 → 부석사 → 선비촌 체험	
	4일 차	문경새재 도립공원 → 철로 자전거 → 도자기 전시관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1일 차	출발 → 대가야 박물관 → 지산동 고분군 → 우륵 박물관	고대 가야국과 근대 조선시대의 역사 현장을 답사. 안동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에서는 4D입체 영상 체험, 양궁체험 등을 한다.
	2일 차	허브힐즈 → 병산서원 → 하회마을, 유교 문화박물관	
	3일 차	국학박물관, 안동산림과학박물관 → 안동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 →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양궁체험)	
	4일 차	산업 곤충박물관 → 예천 천문우주과학관	
천년의 신라, 새천년의 대한민국	1일 차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적인 체험과 함께 한국의 산업발전상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2일 차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신라밀레니엄파크 → 포스코역사관	
	3일 차	호미곶 해맞이광장 → 국립 등대 박물관 →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 풍력발전단지(해맞이공원)	
	4일 차	울진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 → 불영계곡	
남해안을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힘	1일 차	통영 미륵산 전망대 → 해상훈련체험 → 세병관 → 중렬사 → 나전칠기 공예체험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며, 다양한 해양훈련과 나전칠기 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가야문화를 체득하며, 조선소 APEC 정상회의장 등을 돌아보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느낀다.
	2일 차	거제 대우조선소 → 포로수용소 → 바람의 언덕	
	3일 차	김해 가야문화유적 탐방 → 부산 APEC 누리마루하우스(야경)	
	4일 차	부산 아쿠아리움 → 해동용궁사	

이런 다양한 수학여행의 새로운 방안들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모이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주제로 내세운 수학여행도 등장하여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의논과 반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8) 한국관광공사에서 2008년 3월 제시한 “테마별 수학여행 코스” 중 ‘중·고등학생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 부록2 참고.

IV. 수행평가와 연계된 수학여행 방안

1. 수학여행 일정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

일정 분석에 이용한 A중학교는 12학급 400여명의 학생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1) A중학교의 수학여행 일정¹⁹⁾ 및 분석

- 수학여행장소 : 제주도
- 기간 : 2박3일
- 교통수단 : 비행기, 관광버스
- 일정

제1일 : 학교→김해공항→제주공항→오설록박물관→소인국테마파크→
산방산→용머리해안→ 하멜선상기념관→주상절리→약천사→
월드컵경기장→천지연폭포→숙박지

제2일 : 숙박지→신비의도로→산굼부리→성읍민속마을→성산일출봉→
섬지코지→동부해안도로→용두암→숙박지

제3일 : 숙박지→한림공원→금릉석굴원→제주공항→김해공항→학교

(1) 제 1 일

19) A중학교의 자세한 일정표는 부록1 참고.

이 학교의 일정표를 보면 제1일은 오전 10시 20분에 첫 번째 방문지인 오설록박물관에 들른 것을 시작으로 모두 8개의 방문지를 거쳐 저녁 7시에 숙박지에 도착하였다. 각 방문지에서 관람에 허용된 시간은 30분에서 60분 까지였으며 약천사와 월드컵 경기장은 두 곳을 묶어 4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기도 하였고 산방산과 하멜선상기념관은 두 곳을 묶어 50분의 시간이 배정되었는데 더 많은 방문지를 찾기 위하여 거리가 가까운 곳을 함께 묶어 시간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방문지에서 다음 방문지로의 이동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들이 여러 방문지를 들르기 위하여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방문지 간의 연관성 보다는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고려하여 비슷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소들로 하루 일정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방문지의 성격을 보면 특수박물관 1곳, 유원지 1곳, 유적지 2곳, 체육시설 1곳, 자연환경 및 생태관찰 3곳이었다. 소인국테마파크의 방문 시간이 60분으로 제일 길었고 주상절리는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중식에 배정된 시간은 50분으로 4백 명 가까운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마치고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저녁 7시 숙박지 도착 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채 석식 후 자유시간이 주어져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2) 제 2 일

제 2 일은 아침 8시에 숙박지를 출발하여 모두 8 개의 방문지를 들렀는데 각 방문지에 배정된 시간은 10분에서 60분까지였고 중식에는 50분이 주어졌다. 방문지 간의 이동에는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이 소요되었다. 방문지의 성격은 특수박물관 1곳, 민속마을 1곳, 시설물 1곳, 자연환경 및 생

태관찰 5곳이었으며 저녁 6시 30분에 숙박지에 도착한 후는 첫 날과 마찬가지로 따로 마련된 프로그램 없이 석식 후 자유시간이 허용되었다.

(3) 제 3 일

제 3 일은 아침 8시 40분에 숙박지를 출발하여 두 곳을 들렀는데 각 방문지에 배정된 시간은 30분에서 60분이었으며 두 방문지가 다 지역의 자연 생태를 관찰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중식에는 40분이 배정되어 1,2일에 비하여 10분이 단축되었는데 전체 시간 운영에 맞추어 줄인 것으로 보인다. 중식 후에는 비행기 탑승수속을 위하여 공항으로 이동하였으며 400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이동함에 따라 비행기 좌석의 한계로 각각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오후 4시에 김해공항 도착이 완료되었다.

2) 방문지의 구성과 시간 운영 분석

3일 동안의 방문지는 모두 18개소였는데 이를 방문지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방문지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방문지 성격	개수	방 문 지
특수 박물관	2	오설록박물관, 정석항공관
역사 유적지	2	하멜선상기념관, 약천사
자연 환경 및 생태 관찰	10	산방산,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신비의 도로, 산굼부리,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용두암, 한림공원, 금릉석굴원
민속마을	1	성읍민속마을
기념적 시설물	2	월드컵경기장, 동부해안도로
유원지	1	소인국테마파크

각 방문지에 배정된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60분간인데 이는 실제 해당 방문지에서 체험활동에 모두 할당된 시간이 아니라 학급별 사진촬영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학급단체사진을 촬영하는데 적합한 장소의 경우 촬영을 위한 배정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외의 방문지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두 곳을 합쳐 5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방문 장소에서 4백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잠깐 둘러보는 정도의 시량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그 시간으로는 체험활동은 고사하고 제대로 관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방문지도 짧은 일정에 비하여 너무 많아 주마간산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가능한 많은 방문지를 배열하는 일정이 짜여 지는 것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준비와 프로그램 없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관광적 목적이 우선되어 수학여행이 마련된 결과라 여겨진다. 교실수업의 연계라는 목적이 무색해질 지경으로 학습적 측면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어진 시간과 경비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통념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과연 학생들은 방문한 여러 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느끼며 자신들이 품은 질문을 직접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강하게 갖게 되었는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적 측면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2. 수행평가와 연계한 수학여행 실시 방안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²⁰⁾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수행평가에 대해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행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지식 획득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평가의 본질은 학생의 능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서열을 매기고자 하는 ‘양적 평가’가 아닌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신장시키려는 ‘질적 평가’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수행 활동의 결과보다 수행 과정의 평가와 발전 정도를 중시하여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²¹⁾ 이러한 수행평가의 개념을 살펴볼 때 체험활동인 수학여행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나타낸 다양한 활동과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으며, 교사는 전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어 수행평가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²²⁾ 수행평가를 연계시킨 수학여행의 실시 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사전 준비 단계

수행활동 조별로 일정 동안 활동하며 숙박도 함께 하여 계획된 토론 활동에 참여한다.

(1) 교사의 준비

20) 백순근(1999),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34쪽.

21) 정민금(2007), 「학부모점검을 활용한 수행평가 방안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쪽.

22) 육택수(2005),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과 유형에 따른 선호성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8쪽.

학기 초에 미리 수행평가 계획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수학여행이 관광과 유희 중심이 아닌 학교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수학여행으로서 실시될 것을 이해시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 숙박지를 정할 때 학생들의 토론활동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도교사의 수행활동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일정이 확정되면 수학여행 실시 2주 전에 학생들에게 일정을 알리고, 수학여행 방문지의 자료집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학생들에게 수행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연간지도계획 수립 때 미리 계획된 바에 따라 파워포인트 자료와 사전 답사 때의 동영상상을 이용한 수학여행 방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을 실시한다.
- 수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활동 방법과 순서를 지도한다.
- 숙박지의 방 배정의 인원을 참고하여 1 조당 인원을 4~6명으로 하여 수행활동을 위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별 활동 주제를 정하도록 하고 수행활동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학여행 실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사전계획서 양식은 미리 배부한다.
- 미리 받은 활동계획서를 방문지에 따라 분류한 뒤 각 조의 활동주제를 정리하여 활동 평가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2) 학생들의 준비

수학여행이 학습활동의 연계이며 학교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짐을 인지한다.

- 수학여행의 일정이 발표되면 같은 조원들과 함께 방문지 중에 한 곳을 선정하고 활동 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 조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주제와 관련된 방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문지에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미리 배부된 양식에 따라 수행활동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학여행 방문지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사전 준비물들을 파악하여 조원들이 나누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 활동 단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활동주제와 관련된 방문지에서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의 일정 중에서 관심 있는 방문지를 스스로 선정하고, 활동 주제와 문제점을 탐구하여 선택하고 준비하였으므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리라고 짐작된다. 이미 사전 자료 조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자신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며 알아야 하는 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운영과 조원들끼리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함께 탐구하는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들의 활동주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방문지에서는 개인 별로 관찰하고 탐구하며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는 석식 후 토론시간에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체험보고서에 자신의 경험과 느낌, 소감 등을 간략하게 그리거나 기록하도록 한다.

교사는 각 방문지에서는 주제 활동을 하는 조의 활동을 관찰하여 참여도와 적극성, 협동성 등을 기록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 교사의 활동

-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활동 과정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며 학생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2) 학생의 활동

- 각 조별 활동 주제와 관련된 방문지에서 조원들과 함께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 사전 조사 자료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모은다.
- 활동주제와 관련된 현장 체험을 통하여 사전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한다.
- 사전조사에서 파악한 문제점 외에 현장에서 느끼고 발견되는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 활동주제와 관련 없는 방문지에서는 미리 제시된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방문지에서 활동을 하고 준비된 간단한 양식에 맞추어 현장활동 소감을 작성한다.
- 석식 후 조별 토론 시간에 참여한다.
- 현장체험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모으고 조원들과 함께 정리하고 분석한다.
- 토론을 통하여 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새로운 문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 조별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구성을 의논한다.

3) 사후 정리 및 반성 단계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그 다음날은 여행의 피로를 고려하여 수학여행 보고서나 기행문을 작성하는 등의 수학여행 후 활동을 가정에서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가정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학여행이 무리한 일정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방문지의 수를 늘린 결과로 인한 관광버스 타고내리기의 반복, 그리고 놀이로 인한 피로 등이 누적되어 수학여행 후의 활동 보다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행 후에 여행의 경험을 되새겨보고 정리하며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의 소중함도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광과 유희 중심의 여행 후의 피로감에 지친 휴식이 교육적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의 목적을 살린 새로운 수학여행은 수학여행 후의 활동에서도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 수학여행 일정 다음 날의 ‘가정학습의 날’이 학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수행평가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조원들이 함께 모여 역할을 나누어 수행평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한다.

- 활동 주제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한다.

- 활동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편집하여 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한다.

(2) 고려되어야 할 점

- 학생들은 수행활동 조별로 일정동안 활동하며 숙박도 함께하여 토론활동에 참여한다.
- 수학여행의 방문지에 대한 기초자료제공과 사전 교육이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짤 때 방문지의 수를 조절하고 시량을 확보한다.
- 조를 편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 현장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방문지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여행업체 안내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3. 수학여행을 이용한 수행평가안의 제시

수학여행은 탈교과적 교육활동이지만 역사교육 학습활동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²³⁾ 역사과를 모델로 한 수학여행을 이용한 수행평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신윤원(2006),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육에서 수학여행의 효율적 활용」,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쪽.

역사과 수행평가

1. 활동목표 : 수학여행지와 관련된 활동주제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다.
2. 평가항목 : 보고서(조별활동계획서, 조별활동보고서, 현장활동소감문)
3.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조별활동 계획서	5점	-조별점수 평가 요소 ◦ 조원의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는가? ◦ 계획서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방문지와 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 계획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되었는가? ◦ 사전자료조사를 실시하였는가? ◦ 제출기한은 지켰는가?
조별활동 보고서	10점	-조별점수 평가 요소 ◦ 조원들의 협동은 잘 이루어졌는가? ◦ 보고서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 현장활동과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는가? ◦ 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서술되었으며 분량은 적절한가? ◦ 제출기한은 지켰는가?
현장활동 소감문 (개인별)	5점	-개인별점수 평가 요소 ◦ 방문지와 소감문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가? ◦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논리 있게 서술하였는가? ◦ 제출기한은 지켰는가?

4. 배점 기준

① 조별 세부 배점(절대평가)

A(5점/10점) : 여섯 가지 요소 중 여섯 가지 요소를 갖추

B(4점/8점) :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

C(3점/7점) : 네 가지 요소를 갖추

D(2점/6점) : 세 가지 요소를 갖추

② 개인별 세부배점

A(5점) : 세 가지 요소를 갖추

B(4점) : 두 가지 요소를 갖추

C(3점) : 한 가지 요소를 갖추

D(2점) : 미제출자 또는 소감문 쓰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

5. 수행활동 안내

- ① 자유롭게 4~6명으로 조를 편성한다. (수학여행 숙박지의 방 배정 인원을 참고하여 인원을 조정하도록 한다.)
- ② 수학여행 방문지 중에서 관심 있는 한 곳을 골라 활동 주제를 정하거나 탐구 할 문제를 제시한다.
- ③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때 각기 맡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다.
- ④ 선정된 활동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다.
 - 이 때 교과서나 백과사전, 역사 관련 서적,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었던 수업자료(프린트의 각종 사료)를 두루 살펴보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는다. (현장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물은 나누어 말도록 한다).
- ⑤ 사전 계획에 따라 현장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제기하였던 문

제 해결방안을 의논하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통하여 조절한다.

- ⑥ 수학여행 방문지들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적어 제출한다.
- ⑦ 여행을 다녀 온 후 수집한 자료를 선정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활동보고서를 작성 한다.

6. 유의할 점

- ① 같은 조원들끼리의 역할 분담이 균형이 있고, 공평해야 한다.
- ② 자료 준비에 있어 자료의 적절성을 잘 살핀다.
- ③ 협동심을 발휘하여 조별 활동이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 ④ 현장체험활동시 질서를 잘 지키고 현장보호에 협조한다.

<조별 활동 계획서>

제출 일자	200 년 월 일	학년	반	조 이름	
조원 명단					
방문지					
활동주제					
활동계획 및 역할분담					

【조별 현장활동 보고서】

제출 일자	200 년 월 일	학년	반	조 이름	
조원 명단					
방문지					
활동주제					
활동내용 (자료첨부)					

<개인별 현장활동 소감문>

제출 일자	200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방문지 I					
<활동내용>					
방문지 II					
<활동내용>					
활동소감					

V. 결론

현재의 수학여행이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진정한 수학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최적의 수학여행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이끌고 수학여행 실행 과정을 감독할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수학여행을 위한 전문숙박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단계와 기호를 고려한 식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학여행 일정에 포함되는 박물관, 유적지, 자연환경생태체험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수학여행단에 맞춘 학습프로그램 마련과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담 해설자와 안내원의 교육과 배치는 물론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해설과 안내문 및 체험활동자료와 활동지나 탐구학습지 등이 준비되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학여행 전용 여행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의 효율증대와 미래를 위한 창의성을 갖춘 교육 목표 구현에 적합한 여행상품이 필요하며 학교급별의 단계에 맞춘 다양한 수학여행용 여행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계와 여행업계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학여행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 활용하는 고민은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계의 과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광 위주로 짜여 지고 나열식에 불과한 수학여행 일정들에 학습적

의미를 부여하여 현장에서의 체험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수행평가를 적용시킨 수학여행을 구상해 보았다. 현장에서의 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을 재조정 하고 유희적 놀이에 방치되는 저녁 시간을 낮 동안 조사하고 활동한 자료를 모으고 토론하며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배정하여 현장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행평가를 수학여행과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서의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이면서도 탐구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일정의 마련과 준비는 학습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관찰, 탐구하는 자세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며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행에 참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수학여행이 되려면 교육 활동 전반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이끄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 활동을 중심에 두는 수학여행은 전적으로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교사들은 수행평가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하며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토론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들은 평가를 위한 관찰과 기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수학여행의 교육적 부분에서 학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에 참여하려면 수학여행을 구성하는 과정들이 전문화 되어 각 과정 별로 해당 기관과 담당자가 책임지는 제도의 개편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전체 일정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며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의 활동이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학여행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수학여행은 학교교육활동으로서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백순근(1999),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2000), 『제7차 교육과정 적용-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 길잡이』, 경기도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2001), 『제7차 교육과정 현장 정착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지도 자료집』, 장학자료 제2001-15호.
- 부산광역시교육청(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연수자료』, 부산교육 2007-088.
- 심상신(2005), 『야외교육 및 야외활동』, 대경북스.
-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 수련 활동론』, 교육과학사.
- 전국역사교사모임(2007),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 최상훈·이영호·김한중·강선주(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 송동근·양홍석·최석영(2002), 『문화관광과 박물관』, 민속원.
- 전경수(2005), 『한국 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일지사.
- 조성남·이동원·박선웅(2003),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114호, 집문당.
- 김정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金漢植(1985), 「歷史教育에서 修學旅行의 效果的 活用方案」, 歷史教育論集 第7集.
- 유탉수(2005),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과 유형에 따른 선호성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금(2007), 「학부모점검을 활용한 수행평가 방안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윤(1998), 「수학여행의 반성과 발전」, 수학여행 제 14호, 한국 수학여행협회.
- 박철호(1995), 「學生 修學旅行制度의 효율적인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旅行學研究 第2號.
- 박철호(1998), 「학교 수학여행의 불만족 요인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旅行學研究 第7號.
- 조성극(2000), 「일본의 수학여행과 시사점」, Tourism Research 제14호.
- 신명석(2002), 「대규모 집단 수학여행과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의 만족도 비교」, 觀光研究論叢 第14號.
- 김영훈(2004), 「수학여행모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원(2006),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육에서 수학여행의 효율적 활용」,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승호·김인호(2004), 「청소년 환경체험캠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환경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학생수련교육』 제8집, 전국학생교육원교육연구회.

<부록 1: A중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수학여행 일정표

A팀(부산출발: 1~7,9,10/제주출발: 1~4,9,10)

월 일	교통	시간	행사 일정	관람 시간	식사
제 1 일	전용 버스	05:30~06:10	학교출발 / 김해공항도착		
		06:15~07:10	인원점검/탑승수속(1~7,9,10반)		
	KE 1003	07:30~08:30	부산출발/제주도착 (1,2,3,5,6,7,9(여), 10)		
	OZ 8101	08:00~09:00	부산출발/제주도착(9(남), 4반)		
	전용 버스	09:10~09:30	인원점검/승차 후 출발		
		10:20~11:20	오설록박물관 관람	60분	
		11:30~12:30	소인국테마파크 도착 관람 (B 조와 합류)	60분	
		12:40~13:30	중식		○○식당
		13:40~14:30	산방산(용머리해안)/하멜선상기념관	50분	
		14:50~16:20	주상절리	30분	
		16:30~17:10	약천사 월드컵경기장 경유	40분	
		17:20~18:10	천지연폭포	50분	
		19:00	네스트 힐 콘도 도착		
		19:10	방배정 및 석식 후 자유시간		석식:콘도
제 2 일	전용 버스	06:30~07:30	기상 후 조식		조식:콘도
		08:00	숙소 출발		
		08:50~09:00	신비의도로	10분	
		09:40~10:30	산굼부리	50분	
		10:40~11:20	정석항공관	40분	
		11:40~12:10	성읍민속마을	30분	
		12:20~13:10	중식		△△식당
		13:30~14:30	섬지코지	60분	
		14:40~15:40	성산일출봉	60분	
		16:10~16:40	동부해안도로	30분	
		17:10~17:40	용두암	30분	
		18:30	콘도 도착(석식 후 자유시간)		석식:콘도
제 3 일	전용 버스	07:00~08:00	기상 후 조식		조식:콘도
		08:40	숙소 출발		
		09:00~10:00	한림공원	60분	
		10:10~10:40	금릉석굴원	30분	
		11:20~12:00	중식		○○식당
		13:00~13:30	제주공항도착/인원점검/ 탑승수속-(1,2,3,4,9(여), 10)		
	KE 1016	14:00~15:00	제주출발/부산도착(1,2,3,10,9(여))		
	OZ 8104	15:00~16:00	제주출발/부산도착(9(남), 4반)		

<부록 2: 2008 한국관광공사제공 테마별 수학여행 코스>

◆ 중 · 고등학생 대상 추천 코스 ◆

◎ 수도권·강원권

주 제	일 정		특 징
역사를 배우는 수학여행	1일 차	오두산통일전망대 → 제3땅굴 → 경기영 어마을 파주캠프	경기도 파주지역과 강화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초지진, 강화지석묘, 전등사 방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일 차	석모도(보문사) → 강화역사관(갑곶돈대) → 강화화문석문화관 → 강화지석묘	
	3일 차	초지진 → 옥토끼우주센터 → 전등사	
	4일 차	국립중앙박물관	
문학과 역사가 있는 여행	1일 차	장절공 신승겸장군 묘역 → 애니메이션박물관 → 국립춘천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미술관,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인 편지볼은 자연환경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국립춘천박물관과 막국수박물관에서는 역사 학습과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2일 차	평화의댐 → DMZ내 두타연 → 편지볼 → 제4땅굴 → 을지전망대	
	3일 차	박수근미술관 → 소양강다목적댐 → 청평사 → 춘천막국수박물관	
	4일 차	김유정문학촌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찾아서	1일 차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두루 방문한다. 전쟁기념관에서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접하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해양세계에 대한 체험과 상상력을 제공한다.
	2일 차	코엑스 아쿠아리움 → 전쟁기념관 → 국립현대미술관	
	3일 차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민속촌	
	4일 차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과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	1일 차	장릉 → 청령포 → 화암동굴 → 가리왕산휴양림	강원도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소리 박물관에서는 발명가의 꿈을 키워가도록 도와준다.
	2일 차	대관령양떼목장 →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 참소리박물관	
	3일 차	오죽헌 → 선교장 → 낙산사	
	4일 차	설악산국립공원	
자연과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1일 차	이효석문학관 → 월정사 → 대관령양떼목장	강원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선아라리촌 방문과 레일바이크를 통하여 흥미로운 문화체험도 가능하며 석탄박물관, 고래화석박물관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2일 차	고씨동굴 → 정선레일바이크 → 정선아라리촌	
	3일 차	석탄박물관 → 환선굴 → 죽서루	
	4일 차	동해고래화석박물관	

◎ 충청권

주 제	일 정		특 징
전통문화의 장인정신을 찾아서	1일 차	서동요 셋트장 → 한산 모시관 → 신성리 갈대밭	우리 역사와 문화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세기 한반도의 주인공이었던 백제 역사 현장과 유물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의 밑거름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충청 지역의 명인과 명장을 만나 오늘날 한국의 전통 문화의 위상과 깊이 있는 장인 정신을 배운다.
	2일 차	무량사 → 한울림부여교육원 → 백제역사재현단지 → 부소산성 → 야간프로그램 (캠프파이어)	
	3일 차	궁남지 → 송산리고분과 무령왕릉 → 공산성 → 갑 사 → 대전 국립 중앙과학관 → 야간프로그램(시민천문대)	
	4일 차	뿌리공원 → 단재 신채호 생가 → 무수천하마을 체험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아찾기	1일 차	도담삼봉과 석문 → 온달관광단지 (연개소문셋트장, 온달산성, 온달동굴) → 구인사 → 고수동굴	청풍명월 고장 충청북도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조상들의 여유로운 느끼며,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국내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 산사의 풍경소리에 마음을 가다듬고, 범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2일 차	청풍호 유람선 → 청풍 문화재단지 → 덕주사 마애석불 → 미륵사지 석불입상 → 야간 캠프파이어	
	3일 차	서바이벌 → 범주사 템플스테이	
	4일 차	속리산 문장대 등반 → 정이품소나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서	1일 차	청남대 → 문의 문화재단지 → 유관순 열사 기념관 → 독립기념관	호국순열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또 2003년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개방한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하여 역대 대통령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문의 문화재단지와 아산 세계 꽃 식물원을 견학한다
	2일 차	아산 세계 꽃 식물원 → 외암리 민속마을 → 삼교호 함상공원	
	3일 차	수덕사 → 윤봉길 의사 생가와 충의사 → 김좌진 장군 생가 → 만해한용운 선생 생가 → AB 간척지구 → 캠프파이어	
	4일 차	독살체험 → 안면도 자연 수목원 → 꽃지 해변	
그윽한 풍경소리 곳에서 자아발견	1일 차	청남대 → 문의 문화재단지 → 청원상수 허브랜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신비한 동굴탐험과 내륙호반의 경관을 직접 탐사하면서 모험심과 진취적인 기상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
	2일 차	속리산 문장대 등반 → 범주사 템플스테이	
	3일 차	서바이벌 → 청풍 문화재단지	
	4일 차	구인사 → 온달관광단지 (연개소문 세트장, 온달동굴) → 도담삼봉, 석문	
백제의 혼불이 향기로 변하여	1일 차	태안 안면수목원 → 독살 또는 갯벌체험 → 수덕사	고요함속에서 자기성찰을 하고, 백제의 혼을 되새겨 본다.
	2일 차	삼교호 함상공원 → 외암리 민속마을 → 세계 꽃 식물원	
	3일 차	공주 무령왕릉 → 갑사 템플스테이	
	4일 차	백제역사 재현단지 →한울림 부여교육원	

◎ 영남권

주 제	일 정		특 징
청정자연 속에서 조선시대 탐방	1일차	이문열과 두들마을 → 지훈 문학관 → 반딧불이 생태학교	수학여행 발자취를 따라 문학(두들마을, 지훈문학관)과 자연에 대한 학습효과(반딧불이 생태학교)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키우고, 체험(래프팅, 철로자전거)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즐거움을 만끽한다.
	2일차	청량사 → 청량산 등반 또는 래프팅 체험 → 닭실마을	
	3일차	소수서원 → 부석사 → 선비촌 체험	
	4일차	문경새재 도립공원 → 철로 자전거 → 도자기 전시관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1일차	출발 → 대가야 박물관 → 지산동 고분군 → 우륵 박물관	고대 가야국과 근대 조선시대의 역사 현장을 답사. 안동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에서는 4D입체 영상 체험, 양궁체험 등을 한다.
	2일차	허브힐즈 → 병산서원 → 하회마을, 유교문화박물관	
	3일차	국학박물관, 안동산림과학박물관 → 안동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 →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양궁체험)	
	4일차	산업 곤충박물관 → 예천 천문우주과학관	
천년의 신라, 새천년의 대한민국	1일차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적인 체험과 함께 한국의 산업발전상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2일차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신라밀레니엄파크 → 포스코역사관	
	3일차	호미곶 해맞이광장 → 국립 등대 박물관 →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 풍력발전단지(해맞이공원)	
	4일차	울진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 → 불영계곡	
남해안을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힘	1일차	통영 미륵산 전망대 → 해상훈련체험 → 세병관 → 충렬사 → 나전칠기 공예 체험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현장을 탐방하며, 한려해상공원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다양한 해양훈련 및 나전칠기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가야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진 가야 문화를 체득하며, 조선소, APEC 정상회의장 등을 돌아보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2일차	거제 대우조선소 → 포로수용소 → 바람의 언덕	
	3일차	김해 가야문화유적 탐방 → 부산 APEC누리마루하우스(야경)	
	4일차	부산 아쿠아리움 → 해동용궁사	

◎ 호남권

주 제	일 정		특 징
자연과 인간의 생활사를 찾아서	1일차	미륵사지 → 대우자동차 → 철새조망대	천혜의 자연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자연의 이용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곳을 찾아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코스이다.
	2일차	벽골제 → 금산사 → 대둔산 → 이산묘	
	3일차	덕유산 → 적상산 → 승마체험 → 논개사당 → 춘향테마파크	
	4일차	동학농민혁명관 → 새만금방조제	
고대, 중세, 현대의 역사와 예술을 찾아	1일차	덕유산 → 적상산 → 대아수목원	자연과 문명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연의 보물인 보석과 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며 우리나라 전통의 혼과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곳이 될 것이다.
	2일차	한옥마을 → 보석박물관 → 미륵사지 → 군산동궁사 → 철새조망대 → 채만식문학관	
	3일차	백양사 → 기아자동차 → 국립 5.18민주묘지 → 충장사 → 반남고분군	
	4일차	소쇄원 → 죽녹원	
산악문화와 해양문화의 만남	1일차	승마체험 → 춘향테마파크 → 실상사	산악 지형에 있는 고장과 해안 지역에 있는 고장을 방문하여 두 지역의 문화의 차이와 유물의 차이를 비교 평가해 보고, 자연과 인간이 이루어 낸 유물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코스.
	2일차	강천산 → 고추장마을 → 동학농민혁명관 → 새만금방조제 → 내소사	
	3일차	톱머리해수욕장 → 해양유물전시관 → 자연사박물관 → 왕인박사유적지 → 다산초당 → 고려청자박물관	
	4일차	천문과학관 → 해양자연사박물관	
인간 정서를 형성한 유적지를 찾아서	1일차	원자력발전소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시립민속박물관	인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교와 예술, 문화를 알아보고, 조상들이 남긴 유물을 통하여 과거의 생활과 그때의 생각 등을 알아보고, 현재의 문화, 예술 등이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비교 평가 해볼 수 있다.
	2일차	운주사 → 반남고분군 → 나주읍성권 → 회산백련지 → 해양유물전시관, 자연사박물관 → 영산호농업박물관	
	3일차	운림산방 → 해양자연사박물관 → 윤선도유적지 → 다산초당 → 고려청자박물관	
	4일차	천관산	
역사 속의 서민문화를 찾아서	1일차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함평생태공원 → 생활유물전시관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지역을 찾아 봄과 동시에 서민의 생활사를 조상들이 남긴 유물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을 알아보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2일차	기아자동차 → 시립민속박물관 → 국립 5.18민주묘지 → 운주사 → 보성녹차밭	
	3일차	광양제철소 → 향일암 → 오동도 → 소록도 → 나로도해상관람(우주센터)	
	4일차	화엄사	

◎ 제주권

주 제	일 정		특 징
자연, 생태 체험 코스	1일 차	신비의 도로 → 목석원 → 종달리 해안도로(문주란 자생지) → 제주해녀박물관 → 종달리 조개잡이 체험장 → 하도리 철새도래지(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자연과 함께 삼림욕을 즐기면서 제주의 삶에 영향을 끼친 제주만의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고, 승마를 비롯하여 제주의 문화를 직접 접해보는 경험을 가진다.
	2일 차	성산일출봉 → 성산포유람선(우도팔경) → 섭지코지 → 승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일출랜드(미천굴, 아트센터 체험관)	
	3일 차	제주 자연생태 문화체험골 → 여미지식물원 →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퍼시픽랜드 → 천제연폭포 → 서귀포 감귤 박물관	
	4일 차	금능석물원 → 협재해수욕장(비양도) → 한리수목원	
제주도 역사체험	1일 차	삼양동 선사유적지 → 항몽유적지 → 협재해수욕장(비양도) → 한림공원(협재굴, 쌍용굴)	삼별초 항몽유적지와 일본 해군 항공대 비행장터, 어뢰정을 숨겨두었던 인공 동굴 등을 탐방하여 제주도의 역사를 알아본다.
	2일 차	평화박물관 → 산방산 → 용머리해안 → 하멜 상선전시관 → 알뜨르비행장 → 송악산진지동굴 → 제주43유적지(백조일손지묘, 석알오름) → 제주국제평화센터	
	3일 차	외돌개 → 유람선(서귀포 칠십리 해안절경) → 정방폭포 → 일출랜드(미천굴, 아트체험관) → 제주민속촌박물관 →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4일 차	태왕사신기 촬영세트장 → 승마체험 → 산굼부리 → 삼성혈	
세계자연유산 답사	1일 차	프시케월드(스토리 나비공원) → 어승생악오름트레킹 → 용두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을 답사하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관찰하여 우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보존의 자세를 가진다.
	2일 차	방림원 → 평화박물관 → 설록차박물관 → 소인국테마파크 → 천지연폭포 → 쇠소깍 → 서귀포 천문과학관(야간)	
	3일 차	해녀박물관 → 성산일출봉 → 우도 → 섭지코지	
	4일 차	김녕미로공원 → 만장굴 → 승마체험 → 제주 돌문화공원 → 마방목지	

<2008 한국관광공사 자료 참고>